성인재무교육에서 경제복지의 주관적 평가에 관한 연구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of Consumers in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 사 안 창 희*
교 수 정 순 희**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 University
Instructor : Ahn, Chang-Hee
Professor : Joung, Soon-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behaviors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in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through research targeted at adults. The results indicated by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in the changes of financial behaviors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the time period, and the methods of financial education. Second, financial behaviors were higher when participating in profit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or in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Additionally, the increase was higher when participating in long-term programs. Third, the positive effects on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were financial behaviors, participation in profitable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unmarried and income level.

▲주요어(Key Words) : 성인재무교육(Personal financial education), 재무행동(Financial behaviors), 주관적 경제복지(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Ⅰ. 서 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개인이나 가계 구성원들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능력은 21세기 경제경쟁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며 활용하는가는 개인이나 가계의 모든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금융문맹을 없애려는 노력으로 재무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주 저 자 : 안창희(E-mail : wiseahn@hanmail.net)
** 교신저자 : 정순희(E-mail : jsh@ewha.ac.kr)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무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소비자 단체나 언론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재무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재무교육은 선진국가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고등학생 재무교육 실태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기술·가정, 경제 및 생활경제, 상업경제에서 재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론 중심의 암기식 교육으로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반면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2004년 현재 21개 주에서 개인재무에 관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NCEE, 2005), 미국 고등학교의 재무교육 프로그램은 가계 예산, 금전관리, 저축과 투자, 그리고 신용사용 등의 세분화된 하위과목으로

구성되어 심도 있게 교육하고 있다(Boyce & Dance, 1998). Bernheim, Garrett 그리고 Maki(2001)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고등학교시절 받은 재무교육은 성인에 이르러서 자산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인이 되었을 때 재무교육을 다시 받게 되는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김경자·홍정하(2002)도 대학시기의 재무교육은 졸업 후 독립된 성인으로서 실질적인 재무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기본적인 금융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준비하는 좋은 시기라고 하였다. 전국적으로 국내 대학에서의 개인재무교육은 소비자학, 경영학, 경제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전반에 걸쳐 교과목을 상세히 교육하는 과정은 부족한 실정이다(배미경·여윤경, 2004).

더욱이 재무교육은 특성상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청소년 대상의 재무교육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성인을 위한 재무교육 기회는 제한적이다. 반면, 미국은 재무교육(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을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여 재무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재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 미국 내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무 의사결정과 연금 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재무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mployee Benefits Research Institute, 1998).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에 관한 연구(Garman et al., 1999)에서 재무교육 참여자들은 교육에 참여한 후 개인의 재무행동에 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무교육과 저축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연구(Bayer, Bernheim & Scholz 1996; Bernheim & Garret 1996; 2003)에서는 재무교육이 저축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경제 복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재무교육을 잘 받은 소비자들은 개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경제적 안전망과 경제 복지도 증가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 방식은 청소년이나 기타 다른 연령 대상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성인학습이론(권두승, 2002)에 의하면 성인의 학습특징은 타인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활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Knowles(1975)는 가장 효과적인 성인교육 방식과 커리큐럼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Rhine 과 Toussaint-Comeau(2002)은 개인금융정보를 전달할 때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재무교육 참여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어떠한 학습방법으로 교육을 하였을 때 교육의 효과가 높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재무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또한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경제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교육 후 학습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관리자인 성인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재무교육 방식과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주관적 경제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성인 재무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선행연구 고찰

1. 재무교육이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재무교육의 인과성을 밝혀내기 위해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재무교육 실시 전후의 재무행동 변화를 주관적 평가방식으로 측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NEFE 고등학교 재무계획프로그램 효과 연구(Boyce & Dance, 1998)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재무교육 실시 후 학생들의 재무지식, 재무행동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재무계획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기 전보다 재무행동과 지식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재무계획프로그램 참여 후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소비습관과 저축습관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저축습관에 변화가 있었다는 학생 232명 중 39.5%는 새롭게 저축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7.2%는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소비를 다시 검증하게 되었으며, 금전관리에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의 재무교육은 성인이 된 후 재무관리 실행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Stanger(1997)의 연구에 부가적인 증거를 더해주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금전관리 기술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돈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보고(Danes, Huddleston-Casas & Boyce, 1997)와 재무

교육을 어려서 받은 사람일수록 미래에 재정적으로 풍요로울 것이라고 한 Stanger(1997) 연구는 학교 교과 과정에 재무관리 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Garman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재무교육 참여자의 75%는 재무교육 참여 후 재무의사결정에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 참여자 70%는 이전보다 좀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여 재무교육 참여자들은 이후에 재무행동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Kratzer 그리고 Leech(2001)도 직장내 재무교육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재무교육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401k 연금 참여율이 높았으며, 재무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여 Garman 등(199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무교육은 재무행동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Berheim & Garrett, 1996). 즉, 투자목표 조정, 투자계획 구성, 청구서 지불 계획, 비상자금 마련 및 추가준비, 편안한 노후를 위한 필요자금 계산, 은퇴를 위한 준비금 증액, 신용카드 잔고 액수 감액, 은퇴준비자금을 포함한 자산 배분 조정 등 실질적 재무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O'Neill 등(2000)은 Money 2000 education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재무행동과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Staten, Elliehausen 그리고 Lundquist(2002)는 신용상담을 받은 피상담자들과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한 결과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부채가 감소되고, 신용카드 관리에 있어 더 나아졌으며, 연체율이 낮아지는 등 다양한 재무행동에 증진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Hirad와 Zorn(2001)도 주택을 구입하기 전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연체율이 낮아 재무교육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Rand(2004)의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재무교육과 자산 리모델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는 빈곤계층과 공적부조 수혜자를 대상으로 Financial Link for Low-Income People (FLLIP)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연구자들은 교육이수 후 6개월에서 12개월 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 대상자의 71-80%는 재무교육의 필요성과 지식획득을 하는데 성공적이었으며, 긍정적인 재무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받은 사람 중 84%는 지출 관리기술이 더 나아졌으며, 83.5%는 가계예산 구성방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82.4%는 신용카드 부채 관리에 있어 더 나아졌으며, 74.7%는 정기적인 저축의 양이 증가하였다. 은행 계좌를 갖지 않았던 참여자의 33.6%는 처음으로 저축계좌를 신규로 만들었으며, 약 30%는 대출금과 은퇴 그리고 다른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저축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현재 재무문제가 가장 심각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2. 재무교육이 주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재무교육과 주관적 경제복지에 관한 연구는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교육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재무교육 실행 후 피교육자가 느끼는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측정되어졌다.

Garman 등(1999)은 Southeastern chemical production company 회사 직원 총 178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재무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무교육 참여자일수록 재무상황에 대한 만족도인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참여자들은 자신의 저축금액과 노후 준비 저축액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달 나가는 생활비 걱정과 소유하고 있는 돈의 양에 대한 걱정과는 부적으로 의미가 있음이 밝혀졌다.

Kim, Garman 그리고 Sorhaindo(2003)의 연구에서는 신용 상담, 재무행동, 재무스트레스, 주관적 경제복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계를 2000년 6월과 2002년 1월 2회에 걸쳐 신용상담 기관의 고객을 중심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관계를 증명하였는데, 그 결과 신용상담은 주관적 경제복지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재무교육은 그들의 주관적 경제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Kim et al., 1998; Kim et al., 1998; Joo & Garman, 1998)되었다.

3. 재무행동과 주관적 경제복지

재무행동과 경제복지에 관련한 선행연구(Hira와 Mugenda, 1999; Joo, 1998; Joo & Grable, 2004; Xiao et al., 2005)를 통해서 합리적인 재무행동은 재무만족을 높여 경제복지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용카드 대금지불, 비교구매와 같은 긍정적인 재무행동은 재무 만족도와 정적이며(Joo, 1998),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개발하는 행동, 저축을 증가시키거나 시작하는 행동, 개인부채를 감소시키는 행동은 재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Xiao et al., 2005).

재무행동을 매개변수로 한 경제복지에 대한 경로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재무행동은 재무만족도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oo & Grable, 2004), 계선자(2000)는 재무행동을 재무관리계획과 재무관리 수행으로 나누어 경제복지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는데, 재무행동 능력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2000)도 영수증관리, 가계부기록, 저축 및 소비습관 등을 재무행동 척도로 하여 재무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무행동과 재무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Godwin, 1994; Mugenda, Hira & Fanslow, 1990; 배희선 · 최현자, 1996)이 재무행동이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재무교육 방식에 따라 재무교육 참여자의 재무행동변화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 인구통계적특성 변수, 재무교육 변수는 재무행동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인구통계적특성 변수, 재무교육 변수, 재무행동변화 변수는 주관적 경제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변수의 측정

1) 재무교육

재무교육 변수는 재무교육 주체, 재무교육 프로그램유형, 재무교육 시간, 재무교육 방법, 재무교육 매체로 구성되었다. 재무교육 주체는 정부기관, 대학교, 사설경제교육기관, 직장으로 구분하여 각 형태별로 '재무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묻는 명목척도로 구성한다. 때 회귀분석을 위해 참여자 1, 비참여자는 0으로 측정한다. 교육기관별 참여여부에 대한 설문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에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교육',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정규 재무교육', '사설(신문사, 은행, 재무컨설팅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개설한 개인재무, 금융프로그램)경제 교육 프로그램', '직장내에서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재무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재무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질문은 일회성 프로그램, 정기적 프로그램, 장기적 프로그램을 명목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일회적, 정기적, 장기적인 시간 경과에 따라 재무행동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차이검증을 실시한다. 또한 회귀분석을 위해 일회성 교육프로그램을 0으로 정기적 · 장기적 프로그램을 1로 측정한다.

재무교육 시간에 따른 재무행동변화에 대한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0시간에서부터 가장 많이 재무교육을 받은 시간까지 나열한 후 이를 군집분석을 통해 동질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재무교육 방법은 '강의식 수업', '토의식 수업', '실습 수업', '협동식 수업(팀학습)',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업' '1:1 상담' 등 6개의 명목척도로 구성한다.

재무교육 매체는 김혜선 등(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인쇄매체(유인물, 잡지, 팸플릿)', '시각매체(OHP, 파워포인트)', '비디오 등 시청각매체', '인터넷 및 컴퓨터' '기타' 등의 5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때 정부기관, 대학교, 사설경제교육기관, 직장의 중복학습자로 인해 다중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금융프로그램유형, 재무교육방법, 매체는 차이분석을 위해 4개의 기관의 응답을 합쳐 하나의 변수로 만들었다. 즉, 최대시간-최대 프로그램, 최대시간- 최대 학습방법, 최대시간- 최대 학습매체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4개의 기관에서 강의시간이 가장 길었던 프로그램, 방법,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습자가 일회성교육 프로그램으로 1시간을 그리고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30시간의 교육을 중복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30시간의 장기프로그램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2) 재무행동변화

본 연구에서 재무행동변화는 재무교육을 받은 결과로서 재무교육 이후 재무행동의 변화를 살펴본다. 재무행동변화는 의사결정, 투자전략, 노후설계 3항목을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방식으로 조사한다.

교육 받은 후 재무행동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Garman 등(1999) 및 Berheim과 Garrett(1996; 200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재무행동변화에 관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영역은 '재무교육 후, 나는 재무의사결정을 더 잘 하게 되었다.', '재무교육 때문에 나는 투자결정을 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투자전략 영역은 '나의 투자 전략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바뀌었다', '재무교육은 자산배분(포트폴리오)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노후설계 영역은 '재무교육 때문에 나는 은퇴를 위

한 준비금을 증액하였다', '재무교육 때문에 나는 노후를 위한 연금을 새로 가입하였다'를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재무행동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를 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의 재무행동변화란 재무행동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3) 주관적 경제복지

주관적 측정은 재정상황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재무상태 만족도, 재무관리 수행정도, 재무상황인지 금전관리, 신용관리, 소득적정도, 위기관리 영역으로 총 12문항으로 조사한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1점, '매우 만족'이 5점으로 설계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재무상황에 만족하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재무상황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재무관리 수행정도는 '항상 어려움'에서부터 '매우 잘 수행'까지 5점으로 측정하였다. 현재 재무상황에 관한 개인의 인지는 '아주 부족'이 1점, '가족이 원하는 것을 일부는 살 수 있지만 전부사기는 어렵다'가 3점, '원하는 것을 사고도 저축할 돈이 있다'까지가 5점으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재무상황이 풍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전관리, 신용관리, 소득적정도, 위기관리 항목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회귀분석을 위해 주관적 경제복지 항목을 총합하여 점수를 구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주관적 경제복지 척도 문항의 Cronbach's α는 0.87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정부기관, 대학교, 사설경제교육기관,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무교육 후 재무행동의 변화와 주관적 경제복지에 관련하여 재무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재무교육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총 239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조사는 2005년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전주,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대인면접,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방법을 통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11.0)을 사용하여 일원분산분석, t-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Ⅳ.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재무교육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가 59.0%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30대가 68.2%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나 대학원 이상 집단보다 대졸 집단이 62.8%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자택이 59.0%, 전세·월세·기타가 41.0%를 차지하여 자택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전체의 77.8%를 차지하였고, 미혼은 전체의 22.2%를 차지하여 기혼이 미혼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생활주기에서는 가정확대기 단계가 68.2%로 과반수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재무교육 관련 특성

재무교육 참여자들의 재무교육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즉, 재무교육 방식에는 재무교육 주체, 재무교육 프로그램 유형, 재무교육 시간, 재무교육 방법, 재무교육 매체, 재무교육 영역에 대한 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9

변 수	구 분	빈도(%) / 평균값(sd)
성별	남	141(59.0)
	여	98(41.0)
연령	30대	163(68.2)
	40대	71(29.7)
	50대	5(2.1)
	평균	36.7
교육수준	고졸 이하	40(16.7)
	대졸	150(62.8)
	대학원 이상	49(20.5)
주택소유 형태	자택	141(59.0)
	전세·월세·기타	98(41.0)
직업	회사원·공무원	143(59.8)
	주부	8(3.3)
	전문직	30(12.6)
	자영업	11(4.6)
	생산직·학생·기타	47(19.7)
결혼상태	기혼	186(77.8)
	미혼	53(22.2)
소득(만원)	월 평균소득	424.18(210.82)
가족생활 주기단계	미혼 및 가정형성기	56(23.4)
	가정확대기	163(68.2)
	가정축소기	30(8.4)

<표 2> 재무교육 참여자들의 재무교육 관련 특성

문 항	구 분	빈 도(%)
재무교육 주체	정부기관	38(12.4)
	대학교	84(27.4)
	사설경제교육	85(27.7)
	직장	100(32.6)
재무교육 프로그램 유형	일회성 프로그램	138(45.0)
	정기적 프로그램	106(34.5)
	장기적 연속프로그램	63(20.5)
재무교육 시간*	6시간 이하	100(41.8)
	41시간 이하	77(32.2)
	42시간 이상	62(25.9)
재무교육 방법	강의식수업	260(72)
	토의식수업	28(8)
	실습	15(4)
	협동식 수업	19(5)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업	15(4)
	1:1 상담	19(5)
	기타	6(2)
재무교육 매체	인쇄매체	152(40.9)
	시각매체	119(32.0)
	비디오 등 시청각매체	26(7.0)
	인터넷 및 컴퓨터	46(12.4)
	기타	29(7.7)
재무교육 영역	개인재무설계 기초	
	개인재무설계 기초	169(11.8)
	수입과 지출관리	
	자금관리	169(11.8)
	지출관리	134(9.4)
	자산의 보존	
	대출 및 신용관리	111(7.8)
	세금관리	126(8.8)
	위험관리 및 보험	160(11.2)
	자산의 증대와 투자	
	저축	128(8.9)
	증권투자	116(8.1)
	부동산투자	103(7.2)
	노후설계	
	노후설계	124(8.9)
	증여와 상속	87(6.1)

주: 재무교육 주체, 재무교육 프로그램유형, 재무교육시간, 재무교육방법, 재무교육매체, 재무교육영역은 복수응답임

* 재무교육 시간을 여러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2단계에 걸쳐 실행하였다. 먼저 집단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1차 군집에서는 시간을 10개의 군집으로 나누었고 다음으로 분산분석에 사용할 군집을 나누기 위해 2차 군집에서는 이를 다시 사람의 수가 많은 군집부터 묶는 방법으로 하여 3개의 군집으로 나누었다. 즉, 139명으로 묶인 8번째 군집을 1군집, 63명으로 묶인 4번째 군집을 2군집 그리고 나머지 군집은 사람의 수가 적게 분포되어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 3군집으로 하였다. 그 결과 군집 1은 6시간 이하, 군집 2는 41시간 이하, 군집 3은 42시간 이상으로 나뉘어졌다.

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2개 이상의 교육기관에 중복 응답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재무교육 주체는 정부기관, 대학교, 사설경제교육기관, 직장으로 크게 4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재무교육 참여 여부에 대하여 다중응답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각 유형에 대한 재무교육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재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100명(32.6%)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설경제교육기관과 대학교에서 재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각각 85명(27.7%), 84명(27.4%)으로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정부기관에서 받은 사람이 38명(12.4%)으로 나타났다.

재무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45.0%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기적 프로그램이 34.5%, 장기적 연속프로그램이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무교육 시간은 설문항목의 시간과 횟수를 곱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기관에 중복 응답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 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재무교육을 받은 시간은 6시간 이하로 41.8%를 차지하였다.

재무교육 방법은 강의식 수업이 72%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토의식 수업 8%, 협동식 수업, 1:1 상담이 동일하게 5%, 실습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업이 각각 4%, 기타가 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무교육 매체는 인쇄매체가 40.9%로 가장 많이 교육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무교육 영역에서는 개인재무설계기초 11.8%, 자금관리가 11.8%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교육받은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대상자의 재무행동변화 특성

재무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무교육 이후 재무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행동 변화의 전체 평균은 19.12로 나타났으며, 이때 점수의 범위는 6-30점까지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평균 점수 19.12를 5점 척도상의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3.19로 이 점수는 재무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재무행동변화에 있어 '그렇다'에 보통(3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무행동변화의 하위항목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투자전략 영역으로 6.78점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평균점수는 6.71점,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는 노후설계 영역으로 5.63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무행동 변화의 각 설문항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사결정 영역에서 재무의사결정과 투자결

<표 3> 재무행동변화의 일반적 경향 n=239

영역	분류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그렇지 않다 빈도(%)	보통 빈도(%)	그렇다 빈도(%)	매우 그렇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재무행동변화	의사결정	재무의사결정	4(1.7)	30(12.6)	89(37.2)	101(42.3)	15(6.3)	6.71	(1.64)
		투자결정	5(2.1)	40(16.7)	85(35.6)	91(38.1)	18(7.5)		
	투자전략	투자전략	6(2.5)	42(17.6)	98(41.0)	76(31.8)	17(7.1)	6.78	(1.65)
		자산배분 재구성	5(2.1)	23(9.6)	82(34.3)	95(39.7)	34(14.2)		
	노후설계	은퇴준비금 증액	13(5.4)	75(31.4)	83(34.7)	45(18.8)	23(9.6)	5.63	(1.95)
		노후연금 가입	26(10.9)	97(40.6)	61(25.5)	39(16.3)	16(6.7)		
	전체항목		4(1.7)	13(5.4)	81(33.9)	115(48.1)	26(10.9)	19.12	(4.44)

정은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6%, 45.6%로 '그렇지 않다 이하'에 응답한 비율 14.3%, 18.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전략 영역인 투자전략과 자산배분 재구성 항목에서도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38.9%, 53.9%%로 '그렇지 않다 이하' 20.1%, 11.7%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재무교육이 자산배분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과반수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재무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후설계 영역인 은퇴준비금 증액과 노후연금 가입은 '그렇다 이상'이 28.4%, 23%로, '그렇지 않다 이하가 '36.8%, 51.5%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arman 등(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재무교육 후 재무의사결정과 투자전략에 대하여 재무교육 참여자들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노후설계에 대하여는 45% 이하만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 재무교육 방식에 따른 재무행동변화

재무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재무교육의 방식에 따라 재무교육 후 재무행동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즉, 재무교육의 프로그램 유형, 재무교육 시간, 재무교육 방법, 재무교육 매체에 따른 재무행동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때 재무행동변화는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재무행동변화의 주관적 평가는 의사결정, 투자전략, 노후설계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재무행동변화는 의사결정과 투자전략 항목에서 중간값을 상회하였으며 재무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회성, 정기적, 장기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각 의사결정과 투자전략 재무행동변화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회성과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보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재무행동 변화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재무 교육을 받은 후, 재무 의사결정을 더 잘하며, 투자결정, 투자전략도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노후 설계 행동변화의 차이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도 다른 항목보다 낮게 나와 이 항목의 재무행동변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재무교육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재무교육 시간에 따른 재무행동 변화 분석 결과에서는 재무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재무행동 변화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교육 방법에 따라 재무행동 변화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복수응답 처리된 재무교육 방법은 최대시간 - 최대방법을 통해 강의식, 토의식, 실습, 협동식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다시 사람 수를 기준으로 강의식, 토의식, 실습·협동식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재무행동 변화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무교육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 항목과 노후설계 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교육 방법 중 실습·협동식 수업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재무행동 변화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강의식 수업이 가장 평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재무교육 방식에 따른 재무행동변화 분석

변수	집단구분	의사결정		투자전략		노후설계	
		평균 (표준편차)	Duncan	평균 (표준편차)	Duncan	평균 (표준편차)	Duncan
재무교육 프로그램유형	일회성(N=103)	6.41(1.57)	a	6.58(1.49)	a	5.49(1.86)	
	정기적(N=85)	6.86(1.61)	a	6.89(1.75)	ab	5.56(1.90)	
	장기적(N=51)	7.60(1.62)	b	7.32(1.93)	b	6.30(2.28)	
	F값	8.503***		3.195*		2.602	
재무교육 시간	6시간 이하(N=137)	6.12(1.59)	a	6.33(1.56)	a	5.07(1.66)	a
	41시간 이하(N=64)	6.79(1.56)	b	6.69(1.67)	a	5.71(1.97)	b
	42시간 이상(N=38)	7.73(1.33)	c	7.77(1.38)	b	6.49(2.06)	c
	F값	19.08***		14.363***		10.13***	
재무교육 방법	강의식(N=198)	6.61(1.65)	a	6.69(1.66)		5.42(1.86)	a
	토의식(N=28)	7.00(1.56)	ab	7.32(1.59)		6.43(2.25)	ab
	실습 · 협동식(N=13)	7.69(1.32)	b	7.00(1.53)		7.08(1.66)	b
	F값	3.24*		1.95		7.39***	
재무교육 매체	인쇄매체(N=203)	6.60(1.64)		6.67(1.64)		5.43(1.87)	
	시각 · 시청각 · 인터넷 · 컴퓨터(N=36)	7.36(1.50)		7.39(1.59)		6.75(2.03)	
	t값	-2.62**		-2.43*		-3.83***	

*P<.05, **P<.01, ***P<.001

교육 매체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연결하여 학습내용의 전달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받는 대상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매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행할 때 학습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매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교육 매체에 따라 재무행동 변화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교육 매체는 최대시간 - 최대매체 방법을 통해 인쇄매체, 시각, 시청각, 인터넷 및 컴퓨터로 선택되어졌으며, 이는 다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인쇄매체, 시각 · 시청각 · 인터넷 및 컴퓨터의 2개 집단으로 나누어 재무행동 변화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각 · 시청각 · 인터넷 및 컴퓨터를 사용하였을 때 재무행동 변화의 평균 점수는 인쇄매체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높게 나와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재무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으로 평가된 재무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재무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적 특성변수와 정부기관, 대학교, 사설경제교육기관, 직장에서의 재무교육 참여 여부, 재무교육 프로그램 유형, 재무교육 시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표 5> 참조). 이때 재무행동 변화는 의사결정, 투자결정, 노후설계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되어졌다.

연구결과,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사설경제교육기관 참여 여부, 교육프로그램유형, 재무교육시간이 재무행동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설경제교육기관에서 개설된 재무교육 참여자일수록, 일회성보다는 정기와 장기성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재무교육시간이 길수록 재무교육 후,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교 교육은 재무행동변화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무행동보다는 재무이론과 원리 중심의 교육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재무교육 후 투자전략에 관한 행동변화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설경제교육기관 참여자와 재무교육 시간으로 밝혀졌다. 즉 사설경제교육 참여자 일수록 재무교육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투자전략에 대한 재무행동 변화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노후설계에 대한 재무행동 영역에서는 사설경제교육기관과 직장에서의 재무교육 참여자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정기와 장기교육프로그램에 참여자가 재무행동변화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설 재무교육 기관에 참여한 자들은 의사결정, 투자전략 그리고 노후설계에

<표 5> 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		투자전략		노후설계	
	B	β	B	β	B	β
인구통계학적변수						
연령	0.036	-0.127	-0.026	-0.090	-0.003	-0.009
성별 여						
남	0.045	0.013	0.033	0.010	0.017	0.004
학력 고졸이하						
대졸·대학원 이상	0.182	-0.041	-0.578	-0.129	-0.407	-0.078
결혼여부 미혼						
기혼	0.040	-0.010	0.089	0.022	0.356	0.077
주택소유 비자가						
자가	0.185	0.054	0.065	0.019	0.118	0.029
소득	0.001	0.101	0.001	0.119	0.001	0.105
가족생활주기단계	0.074	0.056	0.020	0.015	0.013	0.008
재무교육변수						
정부 재무교육참여	0.327	0.073	-0.142	-0.031	0.807	0.152
대학교재무교육참여	-0.563*	-0.162	-0.507	-0.145	-0.158	-0.039
사설 재무교육참여	0.692**	0.202	0.693**	0.201	1.080***	0.268
직장 재무교육참여	0.345	0.103	0.197	0.059	0.898**	0.229
교육프로그램유형(일회성)						
정기성과 장기성	0.674**	0.203	0.446	0.134	0.965***	0.247
재무교육 시간	0.284***	0.283	0.224**	0.222	0.079	0.067
상수	6.160***		6.629***		3.681***	
R^2	0.251		0.188		0.223	
Adj.R^2	0.205		0.139		0.176	
F비	5.457***		3.783***		4.684***	

* P<.05, **P<.01, ***P<.001

관련한 재무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특성변수는 재무행동변화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교육을 받은 조사대상자들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계없이 재무교육기관이나 재무교육시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무행동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재무교육을 받게 된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졸이나 대졸에 상관없이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은 연령,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들의 재무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재무교육 변수 중에서 재무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설경제교육기관과 직장으로 나타난 것은 특성 상 교육 참여자들이 다른 재무교육 기관에 비하여 좀 더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며, 교육 참여자의 재무문제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무교육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장기와 정기 프로그램유형이 재무행동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은 교육이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학습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용시간을 할애할 때 재무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관적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 재무교육변수, 재무행동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델 1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만을, 모델2 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변수와 재무교육변수를, 2모형에서는 재무행동변화변수를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고자 상관관계, Tolerance 값과 VIF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단계와 연령, 투자결정과 의사결정의 상관관계 계수가 각각 r=0.72, r=0.78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Tolerance 값이 0.3이상이고 VIF값은 4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표 6 > 주관적 경제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인구통계학적변수						
연령	-0.043	-0.036	-0.023	-0.020	-0.016	-0.013
성별 여						
남	-0.746	-0.053	-1.048	-0.074	-1.073	-0.076
학력 고졸이하						
대졸·대학원 이상	0.519	0.028	0.452	0.024	0.623	0.033
결혼여부 미혼						
기혼	-2.542*	-0.154	-2.238	-0.136	-2.570*	-0.156
주택소유 비자가						
자가	1.158	0.080	1.575	0.109	1.362	0.095
소득	0.013***	0.410	0.012***	0.381	0.011***	0.351
가족생활주기단계	-0.332	-0.060	-0.408	-0.074	-0.456	-0.082
재무교육변수						
정부 재무교육참여			0.934	0.050	-0.352	-0.019
대학교재무교육참여			-0.442	-0.030	-0.264	-0.018
사설 재무교육참여			2.449*	0.171	1.226	0.085
직장 재무교육참여			-0.262	-0.019	-1.413	-0.101
교육프로그램유형(일회성)						
정기성과 장기성			1.086	0.078	-0.172	-0.012
재무교육 시간			0.045	0.011	-0.068	-0.016
재무행동변화						
의사결정					0.657	0.157
투자전략					-0.754	-0.181
노후설계					1.195***	0.336
상수	31.092***		29.191***		25.740***	
R^2	0.128		0.165		0.246	
Adj.R^2	0.100		0.116		0.191	
R^2 change	0.128***		0.040		0.086***	
F비	4.720***		3.347**		4.429***	

*P<.05, **P<.01, ***P<.001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변인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 1에서는 소득과 결혼여부가 주관적 경제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미혼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주관적 경제복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홍향숙(1999)과 계선자(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미혼의 경우 경제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자녀출산, 자녀교육, 주택마련 등과 같이 보다 많은 재정적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기혼자의 경제적 복지감이 미혼자보다 낮은 것이라 이해된다. 모델 2에서 재무교육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관적 경제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설경제교육기관 참여와 소득이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즉, 사설경제교육기관에서 재무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의 연구를 통해서 사설경제교육기관 참여가 재무행동변화 뿐 아니라 주관적인 경제복지 수준도 높여준다는 결과는 선행연구(Garman et al., 1999; Kim et al., 1998; Kim, Bagwel et al., 1998; Joo & Garman, 1998)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써 재무교육 참여가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높은 교육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사설경제교육기관 참여자가 다른 교육기관 참여자보다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설경제교육기관이 교육참여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주제와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며, 사설경제교육기관의 참여자 특성 또한 다른 교육기관보다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들로서 재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재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경제적 복지감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써 그

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경제적 복지감이 더 높을 것으로 풀이된다. 모델 3은 재무행동변화 변수를 추가한 것으로 결혼 여부, 소득 그리고 재무행동변화 중 노후설계 영역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미혼자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노후설계에 대한 재무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후준비금을 증액하거나 노후를 위해 연금을 새로이 가입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경제복지감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의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진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주관적 경제복지는 현재에 대한 재정만족도에 위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재정준비 정도에 따라서도 복지감 수준이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들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젊은 시절부터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 설계를 해야만 한다. 이는 개인의 경제복지 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재무교육자나 정책자들은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을 활발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각 단계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모델 1에서 주관적 경제복지는 인구통계적 특성변수에 의해서 12.8%($p<0.001$)가 설명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모델 2에서 재무교육변수에 의한 주관적 경제복지는 4%로 설명되고 있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델 3에서는 재무행동변화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8.6%($p<0.001$)가 설명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으로써 소득이 높은 성인일수록 주관적인 경제복지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재무교육 이후 자신의 노후설계를 위해 은퇴준비금을 증액하는 행동과 노후를 위해 새로운 연금을 가입하는 행동은 성인들의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을 높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정부기관, 대학교, 사설경제교육기관,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재무교육이 재무행동변화와 주관적 경제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재무행동과 주관적 경제복지를 연결하여 재무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서 앞으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과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연령, 성별, 학력, 결혼여부, 주택소유, 소득, 가족생활주기단계)와 재무교육변수(정부기관, 대학교, 사설, 직장 재무교육 참여여부, 재무교육프로그램유형, 재무교육시간) 그리고 재무행동변화변수(의사결정, 투자전략, 노후설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주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재무교육 방식에 따라 소비자들의 재무행동변화에 차이가 있다. 즉, 장기적 재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일회성이나 정기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보다, 재무교육 시간이 길수록,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의식과 실습·협동식 수업이, 인쇄매체보다는 시청각·인터넷·컴퓨터매체가 재무행동 변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무행동에 대한 재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무교육 방식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 재무교육기관에서 대다수 시행되고 있는 일회적 프로그램보다는 일정한 시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교육이 시행되는 정기적 프로그램과 소비자의 재무목표가 도달되기까지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오랜 시간을 두고 금융 교육을 시행하는 장기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재무교육보다는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형식의 장기적 재무교육이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재무교육의 목표인 지식획득과 이를 통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의 교육보다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무교육을 실행할 때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습과·협동식 수업에서 재무행동변화 점수가 높은 것은 수업을 진행할 때 소그룹으로 나누어 학습과제를 교육 참여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하도록 하며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때 수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매체에 대한 연구결과는 인쇄매체 활용을 통한 재무교육의 효과가 낮게 나타난 Bayer, Bernheim 그리고 Scholz (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VTR, 컴퓨터 TV,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게 되면 학습의욕을 돋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무행동을 변화시켜 교육의 효과를 높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인주와 두경자(2003)의 연구

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법이 시청각방식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소비자들의 교육방식 요구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설경제교육기관에 참여한 집단과 정기적· 장기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재무교육시간이 길수록 재무교육 후 재무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성인대상의 재무교육이 정착되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재무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론 중심 교육의 교육에서부터 교육방법이 재정립되어져야 한다. 재무 설계나 자산관리와 같은 금융관련 과목을 전공자뿐 아니라 비전공자들에게도 학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하며, 교육이 실제 생활속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진다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 결국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재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무교육기관을 구축하며 지원하여 재무교육의 발전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바로 진출한 사람들에게 재무교육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이라고 판단됨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직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재무행동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경제교육기관은 재무교육 홍보와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간이 길어질수록 재무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일회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주를 이루는 재무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바이다. 재무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학습자들이 충분히 지식을 숙지하여 태도와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시간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 시간이 경과될수록 교육 내용의 수준을 높여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학습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점진성 있게 구성되어져야 한다.

셋째, 주관적 경제복지는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소득과 결혼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미혼자이며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경제복지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능력이 주관적인 경제복지감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주관적 경제복지감이 높은 것은 자녀교육비, 생활비, 주택마련비 등 재정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기혼자보다 적게 존재하기 때문에 미혼자들의 주관적 경제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무교육변수 중 사설경제교육기관에서 재무교육을 받은 성인일수록 주관적 경제복지감이 높은 것은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재무교육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사설경제교육기관이 성인이 필요로 하는 재무관련 정보를 다른 교육기관에 비하여 높은 교육프로그램 질로 제공하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설경제교육기관에 참여한 자들은 다른 기관에 참여한 성인들보다 자신들의 재무관련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경제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설경제교육기관 참여자들의 주관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경제복지는 노후설계에 관한 재무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재무교육 후 은퇴준비금을 증액하고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을 새로 가입하는 재무행동을 잘 할수록 주관적인 경제복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점입가경으로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노후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노후를 위한 저축 투자와 연금관리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 주관적인 복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재무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재무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무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관리 영역을 개인이나 가계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무교육을 국가적 아젠다로 내세우며 1999년에 경제교육법안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재무부 산하 재무교육국(OFE: the 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하여 미국인들의 실질적인 재무지식과 기술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재무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재무교육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교육주체별로 교육행위와 투자가 이루어질 지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재무교육 기관의 금융전문가와 금융관련 학자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재무교육관련 법이나 제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재무교육에서의 재무행동과 주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은 현재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학교 등에서 재무교육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에게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재무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접 수 일 : 2006년 04월 21일
□ 심 사 일 : 2006년 05월 31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8월 22일

【참 고 문 헌】

계선자(2000).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행동과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95-111.

권두승(2002). **성인학습 지도 방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김경자 · 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재무관리 행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7-122.

배미경 · 여윤경(2004). 금융소비자의 상담 및 분쟁사례를 통한 재무교육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125-149.

배희선 · 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행동과 재정만족도-금전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 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서인주 · 두경자(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14(12),** 117-132.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ayer, J. P., Bernheim, D. B. & Scholz K. J.(1996).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employ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5655. From: http://www.nber.org/paper/ w5655.

Bernheim, D. B. & Garrett, D. M.(1996).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shop :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96-007. Retrieved May 29, 2002, From: http://www-econ.stanford.edu/faculty/workp/swp96007.html

____ & ____ (2003).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1487-1519.

____, ____ & Maki D. M.(2001). Education and saving: The long-term effects of high school financial curriculum mand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0,* 435-465.

Boyce, L. & Dance, S. M.(1998). *Evaluation of the NEFE high school financial planning program.* http://www.nefe.org/pages/educational.html.

Danes, S., Huddleston-Casas, C. & Boyce, L.(1997). An evaluation of a financial planning curriculum for teens. *Proceeding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33-44.

EBRI(Employee Benefits Research Institute)(1998). The 1998 retirement confidence survey(RCS) summer of findings. Washington, D.C. : Employee Benefits Research Institute. From: http://ebri.org/rcs/1998.

Garman, E. T., Kim, J., Kratzer, C. Y., Brunson, B. H. & Joo, S. H.(1999).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improves personal financial wellness. *Financial.*

Godwin, D.(1994).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newlyweds' cash flow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161-190.

Hira, T. K. & Mugenda, O. M.(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worth and financial beliefs, behavior, and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1(4),* 76-82.

Hirad, A. & Zorn, P. M.(2001). A little knowledge is a good thing: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pre-purchase homeowership counseling. Freddie Mac Report.

Joo, S.(1998). *Personal financial wellness and worker job productivity.*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

____ & Grable J. E.(2004). An exploratory framework of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1),* 25-50.

Kim, J., Kratzer, C. Y. & Leech, I. E.(2001). Impacts of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on retirement plans. *Proceeding of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28.*

____, Bagwell, D. C. & Garman, E. T.(1998). Evaluation of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Personal Financial and Worker Productivity, 2(1),* 150-152.

____, Bagwell, D. C., Garman, E. T. & Goodman, J.(1998). Some benefits of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Personal Financial and Worker Productivity, 2(2),* 187-191.

____, Garman, E. T,& Sorhaindo, B.(2003). Relationships among credit counseling clients'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behaviors, financial stressor events, and health.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4(2), 75-87.*

Knowles, M. S.(1975). Self directed learning. Chicago: Follet.

Mugenda, O. M., Hira, T. M. & Fanslow, A. M.(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 343-360.

NCEE(2005), Survey of the States: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 in 2004.

O'Neill, B., Xiao, J., Bristow, B., Brennan, P. and Kerbel, C.(2000). Successful financial goal attainment: Perceived resources and obstacl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1(1),* 1-12.

Rand, Dory(2004) Financial Education and Asset-Building Programs for Welfare Recipients and Low-Income Workers: The Illinois Experience. Clearinghouse REVIEW, *Journal of poverty Law and Policy, May-June 2004,* 49-64

Rhine, S. L. W. & Toussaint-Commeau, M.(2002). Consumer preferences in the delivery of financial information: A summary. *Consumer Interest Annual, 48.*

Staten, M. E., Elliehausen, G. & Lundquist, E. C.(2002). The impact of credit counseling on subsequent borrower credit usage and payment behavior. Monograph #6, Credit Research Center. Georgetown University, March.

Stanger, T.(1997). Future debtors of America. *Consumer Reports, 62,* 16-19.

Xiao, J. J, Sorhaindo, B. & Garman, E. T.(2005). Financial behaviors of consumers in credit counselling. *Draft manuscript accepted for publication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July.